

# ‘저항 서사’ 오월의 기억... 문학적 연대 모색하다



## 광주작가회의 ‘오월문학제’ 전국문인들 한자리 23~24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망월 묘역 심포지엄·5·18문학상 시상식·민주묘지 참배 등

‘살점도 진달래꽃 떨어질 때마다/총성이 울려퍼 나 뉴스들 감추며 신문은/발행되었고 광주에 간 형은/돌아오지 않았다 부고 없는 죽음이/마을의 집 사이에 꽃하고/함석 쪼가리 같은 어머니 가슴에 안겨 나/어머니가 녹는 소리를/환청으로 들었다 세상은 아득하여/날아갈 방향을 허공에 물으며 새가 울고/홍충한 날들이 내 곁을 지나갔다/전하는 불통되었고/치유의 자궁속에서 책가방을 뒷목에 두고 나/무서운 소문들이 울퉁불퉁한 마을의 길을/서성거렸다’

위 시는 이대훈 시인의 ‘그해 봄은’이라는 작품이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오월 결계시로 결려 참배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이번 오월 결계 시화전에는 150여 문인이 참여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가 오월문학제 프로그램 하나로 매년 주도해 진행하고

있는 오월 결계 시화전은 오월 영령들을 추념하기 위해 민주묘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고귀함과 현대사 분수령이 된 5월 18일을 잊지 않고 다시 자각하는 계기를 안겨주는 동시에 문학인들이 바라본 역사에 대한 시각을 통해 자신을 투영해볼 수 있기도 하다.

지역 진보문학 중심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광주 전남작가회의(회장 김미승)는 ‘2026 오월문학제’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갖는다.

‘오월, 생명과 평화의 서사!’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이번 오월문학제는 내년 이후 한쪽에서는 그전당들이 6·3지방선거로 부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계엄 관련 법규까지 미칭상 등 12·3비상 계엄에 대한 청산이 여전히 미진한 가운데 광주전

남은 물론 전국문학인들이 5·18항쟁 46주기를 맞아 광주에 모여 문학적 현안과 각종 현시대 인문학적 사유를 망라해 그에 대한 시대적 고민을 병행하는 매개로 오월이 자리하길 기원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오월문학 심포지엄을 비롯해 5·18문학상 시상식, 축하공연과 연대사 및 시산문낭 등 오월문학제 내 본행사, 5·18민주묘지 참배 등이 잇따라 펼쳐진다. 먼저 이번 문학제 심포지엄에서는 최인훈 소설가의 ‘회색인’을 집중 조망한다. 김영삼 평론가(전남대 외래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심포지엄은 ‘분단 78년, 광주 46년: 최인훈의 문학을 다시 생각한다’ (유희석)와 ‘무인칭의 세계와 인간/비인칭의 공존 가능성’ (임경규)이 발제된다. 유희석 교수(전남대)는 발제에서 4·19혁명이 좌절된 직후에 나온 ‘회색인’은 장면의 규모로 남과 북 전체를 시야에 넣고 다뤘다는 점에서도 당대 문학의 독보로, 독고준의 성찰의 길과 김학의 행동의 길을 대승적으로 종합해서 난감한 분단현실과 대결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임경규 교수(조선대)는 발제에서 공현진의 단편 ‘모두가 사라진 이후에-3인칭의 세계’ 서두를

언급한 뒤 무인칭의 세계를 상상하는 일이야말로, 단순히 어떤 극단적인 종말의 서사를 그리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놓아왔던 오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유의 시도이며, 동시에 그 시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이라고 밝혔다.

토론에는 김주선 문학평론가, 심미소 시인, 안점옥 교수(광주대 문창과), 김현주 소설가가 참여한다. 이어 오후 4시에는 5·18문학상 시상식이 펼쳐진다.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문학상 소개와 인사말, 그리고 시상식이 진행된다.

신인상에는 시 부문 한창현(‘양림동 고양이’), 소설 부문 박소영(‘오월의 스카우트 리포트: 사라진 드림’)이, 아동문학 부문 류상희(‘플라타의 노래’)씨가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된다. 본상 수상자인 백무산 시인(‘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에 대한 시상식, 소감, 기념일 5·18문학상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등 순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오월문학제 본행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박일우 소설가(광주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다. 본행사에서는 김미승 회장의 인사말, 내빈소개, 채희운 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의 환영사, 강영

철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의 축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축하공연에는 울산작가회의, 광주전남작가회의, 경남작가회의가 함께 하고, 연대사에는 이상실 인천작가회의 지회장과 정덕재 대전작가회의 지회장이 맡는다. 시·산문 낭독에는 박한, 이민아, 김연란, 성보경, 유순애, 이오우, 김담이, 문제식 시인 등이 나선다.

오월문학제 이틀째인 24일 오전 10시부터 옛 전남도청 전시관 관람과 5·18민주묘지 참배 및 추모식, 결계시화 관람 등 순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김미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6년 전의 오월은 고립된 도시에서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저항의 서사’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오월은 그날의 기억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 새로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생명과 평화의 서사’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오월문학제가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기후 위기 시대의 문학적 실천과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연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무대 위에서 다시 튀우는 예술혼

‘제1회 노스텔지어 음악 페스티벌’ 개최  
23일까지 전남예고... 정상급 연주자 참여

전남의 예술적 기억과 정체성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제1회 노스텔지어 전남 음악 페스티벌’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전남예술고등학교 음악홀에서 열린다.

축제명인 ‘노스텔지어’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노스토스(Nostos)

와 그리움·고통을 뜻하는 알고스(Algos)가 결합된 라틴어 합성어로, 전남이 지닌 역사적 기억과 예술적 유산을 전남지역에 투영한다는 의미다.

전남예고가 주최하고 문화예술 기획사 아르티팩스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퇴움: Initium’이다. 과거 예술의 정점을 이룬 전남을 ‘예술적 고향’으로 다시 불러내 이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행사는 3일간 총 4회 공연으로 이뤄진다.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첫날인 21일 오후 6시 30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화여대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 첼리스트 심준호(전 서울시향의 수석 첼리스트), 피아니스트 윤홍천(한예종 음악원 교수)이 참여하는 ‘피아노 트리오’ 무대가 펼쳐진다. 이들은 차이콥스키 피아노 삼중주 a단조 작품 50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와 피아졸라



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를 연주한다.

둘째 날인 22일 오후 7시에는 첼리스트 김솔다니엘과 가야금 윤다영으로 구성된 첼로 가야금 듀오가 ‘국악 크로스오버’를 통해 동서양 음악의 조화를 선보인다.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2시에는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J.J.I(인디애나 음대 교수)의 독주 무대 ‘클래식 기타’, 7시에는 한국 최초의 차이콥스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우승자인 김계희, ARD 뮌헨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한지호(인디애나 음대 교수)가 참여하는 ‘듀오 콘서트’로 각각 꾸민다.

공연이 열리는 전남예술고 음악홀은 3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연주자와 관객 간 밀도 높은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조수영 아트팩스 대표는 “전남은 근대 한국 예술의 태동을 함께한 지역으로, 한 때 수많은 예술가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예술적 고향’이

자, 지금까지도 옛 정취를 간직한 곳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의 ‘통념적’ 고향으로도 표현하기 적합한 곳”이라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 영사관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들어서는 수탈과 억압의 아픈 역사를 겪었고, 이후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온 몸으로 받아내며 이에 맞선 저항과 연대의 기억 또한 이 땅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현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태어나고 활동하며, 예술로 시대를 호흡해온 무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스텔지어 전남 음악 페스티벌은 이러한 전남을 하나의 ‘예술적 고향’으로 다시 불러내는 시도다. 과거를 향한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다시 과거의 기억과 흔적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귀환의 여정’이 될 것”이라며 “이번 무대로 전남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다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장미축제 속 예술 산책...사유의 시간 제안

조선대 개교 80주년 기념 특별전 27일까지 교내 미술관

조선대학교 미술관(관장 김일태)은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자연을 주제로 한 특별전 ‘정원을 거닐다’를 지난 7일 개막, 오는 27일까지 갖는다. 출품작은 서양화, 한국화, 설치, 미디어 등 작품 30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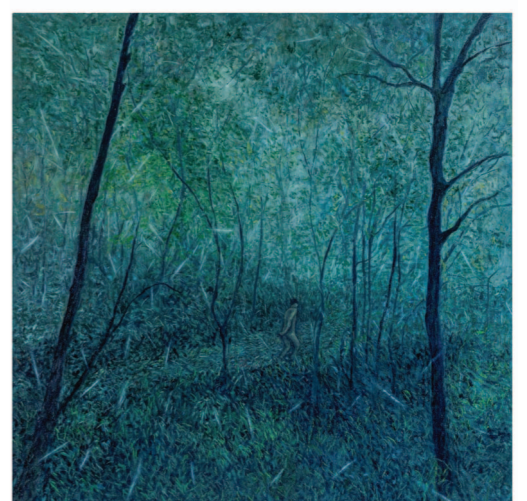
교내 장미축제 기간과 시기를 맞추어 기획된 이번 전시는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예술적 시선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안한다.

작가들은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감각과 기억, 그리고 존재에 대한 사유의 대상으로 확장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다.

전시는 감각과 기억을 통해 내면의 풍경을 확장하는 ‘심상의 정원’을 비롯해 매체와 환경 속에서 인식의 변화를 탐색하는 ‘감각의 정원’ 및 자연을 통해 삶과 존재를 성찰하는 ‘은유의 정원’ 등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된다.

참여작가로는 강미미 김단비 김명우 김수진 김자이 김재민 노은영 박상화 박아론 설박 송지운 양홍길 조선아씨 등 13명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김수진 작가의 ‘연주된 시간의 기록’, 노은영 작가의 회화 작업, 양홍길 작가의 ‘낙화유수’, 설박 작가의 수묵 작업, 박상화 작가의 ‘포스트네이처-광주’, 박아론 작가의 설치 작업 등이 소개되며, 김단비 김명우 김미미 김제민 송지운 조선아씨 등의 회화 및 설치, 미디어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들 작업은 감각과 기억, 존재와 인식 등 서로 다른 층위의 시선을 통해 ‘정원’의 다층적



노은영 작 ‘푸른 풀잎의 날갯짓’

인 의미를 드러낸다.

전시는 작품 간의 관계와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돼 관람자가 각 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자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머물며 여유롭게 감각을 환기할 수 있는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김일태 관장은 “이번 전시는 자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선을 통해 관람객의 감수성을 환기하고,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경험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장미축제 기간과 연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미술관을 찾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관이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적 거점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